

함은 한국의 전통결혼식의 공식절차중의 하나로 결혼을 앞두고 신랑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결혼예물, 혼서 등을 넣어서 보내는 상자이다.

혼서는 신랑의 집에서 귀한 딸을 아들의 배필로 허락함에 고맙게 여긴다는 의미로 보내는 편지이며, 예물로는 다이아몬드, 순금, 루비, 사파이어 등의 각종 보석셋트를 보낸다. 하지만 요즘은 실속위주로 신혼여행 가방을 사용한다.

함의 끈은 무명천으로 어깨에 묶는다. 나중에 이 천은 첫아이의 기저귀를 만들어 쓴다고 한다.

함을 보내는 시간은 해가 진 이후의 시간으로 하며, 이때 신부의 집에서는 시간에 맞춰 함 받을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 신부는 노랑저고리에 분홍치마를 입고, 신부의 부모 역시 한복을 입는 것이 좋다.

그리고, 때때로 지나친 함값의 요구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결혼전문가들은 20~30만원선의 함값이 가장 적당하다고 한다.

또, 요즘은 함자체를 생략하는 것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형식상의 절차보다는 결혼 후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